

삼성전자, 광주 반도체 인재 5년간 150명 양성

광주과기원과 학과 신설 협약... 하반기 30명 선발 '학·석사 통합 첫 반도체 계약학과' 과정 5년간 교육

삼성전자가 광주를 비롯해 지방의 반도체 인재 양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반도체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가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광주시 및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삼성전자 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날 울산과기원(UNIST), 대구과기원(DGIST)과도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와 GIST 등 과기원 3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계약학과를 운영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광주 30명을 비롯해 울산 40명, 대구 30명 등 100명이다. 5년간 총 500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기존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개설한

반도체 계약학과가 학부 과정인 것과 달리 이들 3곳에 신설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석사 교육을 통합한 최초의 '학·석사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기간은 총 5년이다.

반도체 미세화 한계 돌파를 위한 반도체 공정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3곳의 교육 과정은 반도체 공정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생들은 반도체 클린룸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받게 되며,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SW) 등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융합 수업도 병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과 운영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국 7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삼성전자는 2006년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연세대(2021년), KAIST(2022년), 포항공대(2023년)와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 왔다.

이번 신설로 계약학과를 통해 설계, SW, 공정 등 반도체 핵심 분야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는 체계가 구축됐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로 광주와 울산, 대구 등 비수도권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에서 반도체 전문가를 육성해 첨단 산업 현장에 배출하는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서,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계약학과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취업이 보장된다.

매년 반도체 전문가 260명을 양성하던 기존 일부 계약학과는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신설되는 계약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9년부터는 매년 7개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 450명이 배출될 예정이다.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계약학과 신설로 서울·대전·포항에 이어 대구·광주·울산에도 반도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

GIST · 삼성전자
도체공학과(계약학과) 신설 협약
■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11:00 ■ 장소 : GIST 오룡관



삼성전자와 GIST, 광주시는 지난 27일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조정희 GIST 대학장, 이형석 국회의원, 박래길 GIST 총장직무대행,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 사장, 양향자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삼성전자 제공>

성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인재를 지속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보해 막걸리 MZ세대 사로잡는다 '설빙 흑임자순희' 막걸리 출시

흑임자와 100% 우리쌀 순희막걸리 블렌딩...저온 발효로 1년 보관 가능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디저트 카페 '설빙'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막걸리 신제품 '설빙흑임자순희' (750ml·알코올도수 5도)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해 4월 출시 2주 만에 흡플러스 막걸리 분야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설빙인절미순희'의 후속 제품이다.

흑임자순희 막걸리는 설빙의 웰빙빙수 3종 중 하나인 '흑임자찰떡설빙'의 핵심원료인 흑임자와 100% 우리쌀 순희막걸리를 블렌딩해 개발했다.

순희는 막걸리 특유의 텁텁함이 적어 깔끔함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여기에 구수한 흑임자가 더해져 한층 더 풍부한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다. 또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발효

시키는 보해양조의 파스타로 공법을 이용해 12개월까지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지난해 설빙과 협업해 설빙인절미순희 막걸리를 선보였던 보해는 단순히 소비자 호기심을 끄는 상품을 넘어서는 특별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설빙과 레시피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보해의 기술력에 설빙 인절미 빙수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낸 설빙 인절미 순희 막걸리가 탄생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막걸리 수요가 높아진 데다, 흑임자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효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통주 커뮤니티 '백술닷컴'이 발표한 2022 전통주 소비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MZ세대



를 중심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주종별 판매 순위 1위가 막걸리로 나타났다.

특히 설빙흑임자순희는 케이크와 와플 등 다양한 디저트에 활용되며 '할머니일' (할머니+밀레니얼) 트렌드를 대표하는 재료인 '흑임자'가 더해져 조부모 세대 감성과 취향을 즐기려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설빙흑임자순희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콜라보를 넘어 각 브랜드가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제품 간의 만남으로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빙흑임자순희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흡플러스 135개 매장에서 단독 판매 중이다. 가격은 1병당 2190원으로, 출시 기념행사로 2개 구매 시 1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국세청, 하남산단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

애로사항 청경...세정 지원 등 약속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운영석)은 28일(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박흥석) 초청으로 하남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운영석 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입주기업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제도에

대해 문의했고, 해외투자 관련 세금문제와 유의할 사항 안내 요청,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운영석 청장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다양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해 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유용한 세무정보와 유의할 사항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담을 줄이고 연초 신설한 '미래성장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석 이사장은 "광주국세청이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레이싱 드라이버 인재 키운다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 실시

금호타이어는 업계 최초로 모터스포츠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금호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호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젊은 레이싱 드라이버 유망주들이 프로선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국내 최정상 모터스포츠팀인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의 멘토링과 레이싱 관련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해당 육성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메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트레이너 지원 등이 제공되며, 실전 주행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공식 주행 성능 테스트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 금호타이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버전의 레이싱 타이어를 테스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국내 모터스포츠 경기에 메인 드라이버와 함께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금호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첫 번째 후원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GT1클래스에 출전했던 송영광 선수가 선발됐다. 송 선수는 2019년도 카트를 통해 모터스포츠에 입문한 이후 2021년 최연소 나이(17세)로 CJ대한

통운 슈퍼레이스 GT1에 데뷔하며 유망주로 떠올랐다.

또 이번 시즌에 금호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 소속으로 CJ슈퍼레이스 6000 클래스에 참가할 예정이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부문 시즌 종합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운영석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세계 수준의 레이서를 희망하는, 가능성 있는, 젊은 인재의 등용문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금호타이어는 모터스포츠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 외에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홈앤쇼핑 MD 선정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본부)는 최근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홈앤쇼핑 MD상담회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TV홈쇼핑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지역적 한계, 제품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홈앤쇼핑 입점부터 판매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11년간 중기중앙회와 지자체, 홈앤쇼핑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광주·전남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총 84개 지역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홈앤쇼핑 MD 상담회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14개(광주 5개, 전남 9개) 업체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광주·전남도로부터 TV홈쇼핑 입점지원비 업체당 1500만원을 지원받아 홈앤쇼핑에서 방송 판매하게 된다. 판매

시 저렴한 수수료도 적용받는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지난해 광주·전남에 14개 업체가 선정돼 8억8000만원의 우수한 판매실적을 냈다"며 "실적이 좋은 상품들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반 방송으로 전환해 업체당 평균 1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판로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외국인 직업훈련 기관 모집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오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훈련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E-9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재직자와 귀국예정자(3년 이상 재고, 특별재입국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게 된다.

위탁훈련기관 모집 기간은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1일 오후 6시까지다. 공단 광주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직외국인근로자 훈련과정은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용접 직종, 취·창업훈련 과정은 자격제외전, 제과제빵 직종이다.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위탁훈련기관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은 인력공단 광주본부 외국인고용지원부 전화(062-970-1752-4)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영화권 증정 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8월 31일까지 '메가박스카드 앵콜 이벤트'를 진행한다. 28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3월 메가박스와 온·오프라인 영업망을 연계하고, 메가박스 전용 카드(PLCC)를 출시와 '메가박스카드 출시 이벤트'를 2월말까지 진행했다.

광주은행은 고객의 호응이 큰 데다, 디지털 제품 활성화에 맞춰 이벤트 기간을 연장해 '메가박스카드 앵콜 이벤트'를 펼치기로 했다.

메가박스 전용 카드 이용 시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이용조건 충족 시 10분 이내에 메가박스 2인 패키지 또는 1인 영화관람권 모바일쿠폰이 광주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메가박스 전용 카드는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월 1회 메가박스 영화관 3000원 현장 할인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이용 시 메가박스 영화관 1만원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핫트렌드, 인터넷쇼핑,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중교통, 커피전문점 등에서 최고 20% 캐시백을 제공한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문화생활의 즐거움과 편리한 금융생활의 경험을 더 많은 고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재진행하는 '메가박스카드 앵콜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 데이터 융합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광주은행만의 특색있는 디지털금융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434.94(+25.72) |
| ↑ 코스닥 | 833.51(+5.82) |
| ↑ 금리(국고채 3년) | 3.258(+0.038) |
| ↓ 환율(USD) | 1298.80(-2.70) |